

## 달라진 캠프...가을 성적도 달라질까

달라진 캠프가 만들 광주 그라운드 가을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를 대표하는 프로팀 광주 FC와 KIA 타이거즈의 선수들은 2017시즌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광주 선수들은 지난 2일 광양에 소집돼 1차 전지훈련을 소화했고, KIA 선수들은 비활동기간에 맞춰 개인 훈련을 하면서 몸만들기에 한창이다.

겨울 훈련은 팀은 물론 개인의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광주와 KIA의 겨울 훈련에 변화가 있다. 광주는 창단 후 처음 축구의 본고장 유럽으로 건너가 전지훈련을 치르고, KIA는 비활동기간 준수에 따라 2월 본격적인 캠프를 시작한다. 예년보다 보름 정도 늦은 시작이다.

1차 몸만들기를 끝낸 광주 선수단은 16일 포르투갈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첫 유럽행이다. 지난해 태국에서 전지훈



련을 소화했던 광주는 앞서 추운 중국 상하이, 일본 시즈오카 등에서 시즌 준비를 했다. 지난 2014년 정원주 대표이사(의)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브라질행을 추진했던 적은 있다. 하지만 돈을 쥐고 있는 일부 시의원의 반대에 막힌 광주는 시즌 오카로 발길을 돌렸다. 40년 만의 폭설을 만났다.

광주는 좋은 성적으로 시민들 응원에 응답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일본 대신 포르투갈을 캠프지로 선택했다. 훈련하기에 최적인 날씨와 환경, 무엇보다 수준 높은 팀들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광주FC 첫 포르투갈 훈련...유럽 1부팀들과 연습경기 KIA '자율야구'...스프링 캠프 늦추고 체력테스트 생략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이점이다. 광주는 18일 분데스리가 1869 뮌헨(2부리그)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1부리그 라이프치히, 마인츠 등 팀들과 연습경기를 치른다.

확정된 일정만 8경기이고 현지에서 컵 경기와 다른 팀과의 연습경기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여기에 현지에서 올 시즌 팀의 한 축을 담당할 외국인 선수 영입작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라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에 장맛비 미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렵게 결정된 포르투갈 전지훈련인

만큼 광주는 올 시즌 그라운드에서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부상 없이 많이 성장하고 더 탄탄해져서 돌아와야 하는 숙제가 광주 선수들에게 주어졌다.

KIA 선수들에게도 '책임'이 더 중요해진 스프링캠프다. 예년 같으면 이미 캠프에 짐을 풀고 새 시즌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을 선수들이다.

KIA는 지난해 1월16일 애리조나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 2016 스프링 캠프를 시작했다. 하지만 올 시즌 스프링캠프는 오는 31일 일본 오키와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캠프가 늦게 시작되지만 캠프 일정은

예전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김기태 감독 부임 이후 지난 2년간 진행됐던 체력테스트 일정도 생략되면서 선수들은 알아서 몸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다. 1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캠프에서의 경쟁력은 물론 한 시즌의 성적이 달라 지게 될 셈이다. 자율에 따른 책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 시즌이다.

캠프 출발 날짜가 다가오면서 선수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투수들의 마음이 바쁘다. 당장 내달 6일 라이브 피칭이 시작되고, 10일에는 자체 흥행전 일정이 잡혀있다. 이에 따라 "공을 던질 수 있는 몸 상태로 캠프에 참가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지난 겨울과 다른 캠프 분위기. 광주와 KIA 선수들이 변화의 바람을 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NC 이호준 "올 시즌 끝 은퇴"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베테랑 타자 이호준(41)이 2017년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한다.

이호준은 16일 경남 창원 마산구장과 올림피아드관에서 열린 NC 다이노스 선수단 신년회를 마치고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었다"며 은퇴를 발표했다.

이호준은 비시즌 기간에 미국 하와이로 개인 훈련을 떠났다가 우연히 이승엽을 만나 은퇴에 관한 대화도 나눴다. 이승엽 역시 올해까지만 뛰고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손이 떨린다.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 찌릿하다. 놀랐다"며 은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호준은 "작년부터 생각했고, 올해 결정했다.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었다. 하와이로 개인 훈련을 다녀와서 김정문 감독님과 의논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하셨다. 은퇴라는 말을 꺼낼 수 있는 것도 영광이다. 발표도 했으니 올해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다들 놀라보내지 않겠다는 각오도 더욱 생길 것이다"고 언급했다.

광주이고 출신의 이호준은 1994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에 고졸 투수로 입단했다가 타자로 전향해 1996년 6월 4일 데뷔 첫 홈런을 치고 거포로 성장했다. 2000년 SK 와이번스로 이적, 12년을 SK에서 뛰면서 2007, 2008, 2010년 등 세 차례 한국 시리즈 정상을 밟았다.

이런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2013년 1군에 처음 진입한 NC의 맹형 역할을 충실히 해 NC 선수들의 성장을 도왔다. NC가 신생팀에서 벗어나 3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팀이 된 데는 이호준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이다. 이호준은 NC에서 39세 4개월 10일의 나이에 최고령 300 홈런(2015년)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 "강정호 음주운전, 팀내 입지 영향 없어"

#### USA투데이, 주전 3루수 분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음주 운전 사고가 그의 팀 내 입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 USA투데이는 16일 피츠버그의 포지션별 올 시즌 전망을 다룬 기사에서 강정호를 변함없는 주전 3루수로 분류했다.

이 매체는 "강정호는 비시즌 기간 한국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냈지만, 시즌 개막을 준비 중인 구단은 이런 사실이 그의 올 시즌 입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정호가 2015년 9월에 당한 심각한 무릎 부상으로 인해 2016시즌 첫 달을 쉬었는데도 결국 지난해 21홈런, 3타율 0.513의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지난달 초 몸상태로 가드레일을 들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결국 메이저리그 시즌 개막 전인 오는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엔트리에서도 제외됐다.

USA투데이는 "강정호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을 때 데이비드 프리스가 공백을 잘 메웠다"며 올 시즌에도 그가 3루수 백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조디 머서를 팀의 주전 유격수로 보면서 강정호가 때로는 3루수가 아닌 유격수로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가 16일 스페인 세비야의 에스타디오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열린 2016-2017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세비야와의 원정경기에서 1-2로 역전패 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 레알 40경기 무패행진 마감

### 세비야에 1-2 역전패...1점차 불안한 선두

#### 호날두 56번째 페널티킥 득점 '리그 1위'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가 세비야와의 선두권 맞대결에서 역전패하며 40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6일 스페인 세비야의 에스타디오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열린 2016-2017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원정경기에서 후반 막판 2골을 내주며 1-2로 졌다.

전반전을 0-0으로 마친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들어 매섭게 세비야를 몰아쳤다. 후반 22분 다니엘 카르발라이 문전에서 돌파해 들어가다 골키퍼에게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오른발로 왼쪽 골대 구석을 향해 정확히 차넣으며 앞서 나갔다.

이 골은 호날두가 프리메라리가에서 기록한 56번째 페널티킥 득점이다. 2009-2010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은 호날두는 지금까지 리그에서 272골을 골을 터뜨렸다. 그 중 56골이 페널티킥 득점이다. 이로써 호날두는 우고 산체스와 프리메라리가 역대 최다 페널티킥 득점 공동 1위에 올랐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는 실점 후 공세 수위를 높인 세비야를 막지 못하고 후반 40분 동점을 허용했다.

프리키 위기에서 세비야 파블로 사라비아가 차올린 공이 문전에서 경합하던 세르히오 라모스의 머리에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가 자책골을 기록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후 급격히 집중력이 무너졌고 후반 42분 스테반 요베니치에게 위험적인 슈팅을 허용한 데 이어, 문전에서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결국 후반 추가시간 요베니치에게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을 내주고 말았다. 요베니치가 감아 찬 공은 골키퍼 손을 스치며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스페인 국왕컵 16강 2차전에서 세비야를 상대로 1-3으로 뒤지다 3-3으로 비기며 스페인 클럽 최다 무패(40경기) 기록을 세웠으나 이날 세비야에 털미를 잡혔다.

선두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패배로 승점 40에 머물렀다. 세비야(승점 39)는 바르셀로나(승점 38)를 3위로 밀어내며 레알 마드리드를 승점 1차로 바짝 따라붙였다. /연합뉴스

## "이승우 등 바르샤 3인 '백지상태'서 점검"

### 신태용 U-20 감독 "명문팀 프리미어 없"

"직접 제 눈으로 그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하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백지상태에서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사령관인 신태용(47) 감독은 16일 포르투갈로 출국에 앞서 현재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에서 뛰는 '한국인 3총사' 이승우, 장경희(이상 19·바르셀로나 후베닐 A)와 백승호(20·바르셀로나B)에 대해 같은 출발선에서 주전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바르셀로나 소속이라는 '명문팀 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선수들과 동일한 잣대로 경기력만 놓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5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U-20 월드컵을 앞두고 다음 달 6일까지 포르투갈에서 해외 전지훈련을 지휘하는 신태용 감독은 '바르샤 3총사'와 대면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태용 감독은 25명의 전지훈련 소집 멤버

를 데리고 담금질을 한 뒤 3월 JS컵까지 마치고 최종 엔트리 21명을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포르투갈 전지훈련 멤버 중 4명이 탈락하는 데, 바르샤 3총사도 주전 보장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게 신태용 감독의 설명이다.

신태용 감독은 "그 선수들이 바르셀로나에 갈 때는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후 기량이 발전했는지, 정체됐는지는 전지훈련을 통해 파악할 사항이다. 현재 기량이 어떤지가 대표로 최종 선발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며 "경기력과 함께 대표팀 안에서 모나지 않게 하나가 되는 원팀(One Team)으로 녹아들 수 있는지도 지켜볼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우, 장경희, 백승호는 한국 시간으로 17일 포르투갈 현지에서 합류한다.

대표팀은 3주간의 전지훈련을 마치고 다음 달 7일 귀국하며, 3월 JS컵까지 마친 후 최종 21명의 대표팀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